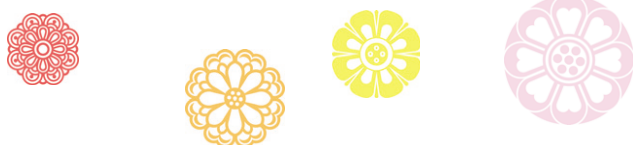




울긋불긋 꽃단청



사찰에 펼쳐진 봄꽃의 향연으로...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는 섬진강의 정취와 함께 산수유, 매화의 향기로움, 초록의 차밭까지 자연이 만들어 낸 다양한 오감과 색채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순천 선암사의 백매와 홍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자태가 아름답다. 매화의 대부분이 400~600년 정도로 오래된 고목들이라, 향과 빛깔이 매화 중에서 '일품'으로 꼽힌다. 선암사 담장을 따라 핀 매화꽃은 단청 없는 선암사를 아름답게 물들게 한다. 선운사를 덮고 있는 매화의 빛깔과 향기는 절로 감탄사를 자아낸다. '사찰에서 보는 매화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선운사 매화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백나무는 '겨울에서 봄까지 귀한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동백(冬栢)'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붉고 강렬한 빛깔이 특징인 동백은, 꽃이 가장 붉고 아름다울 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아야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한다. 떨어진 동백꽃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아련해 더욱 아름답다.

고창 선운사는 이런 동백꽃을 감상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다. 선운사에는 동백꽃이 숲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될 만큼, 500년 이상 된 동백나무들이 3000여 그루나 있다. 선운사 주변에는 동백꽃 외에도, 벚꽃과 철쭉이 연이어 피어 봄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하동 쌍계사는 봄을 가장 대표하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벚꽃은 화사한 눈꽃처럼 피었다가 한 번에 꽃비가 돼 내려,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를 더욱 신경 써야 한다. 4월 2~4일까지는 화계장터 벚꽃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화계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벚꽃 길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또한 섬진강 주변부터 화계동천 25km 구간도 만개한 벚꽃으로 단장되면, 눈부실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 통도사 서운암으로 가면 100여종이 넘는 들꽃들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서운암의 마스코트인 3000개의 장독대 주변으로 피어나는 다양한 들꽃들은 산사와 어우러져 아주 특별한 장관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서운암 들꽃축제 기간에는 사진전, 시화전, 그림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위에서부터 통도사 서운암의 들꽃축제 풍경 (현대불교 자료 사진),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산수유 꽃(구례군 제공), 선운사 경내에 붉게 피어난 동백꽃의 모습(선운사 제공)

"Oh! Beautiful day, Oh! Beautiful life. 따뜻한 햇살 그 봄바람에 취해 볼까?"

어느 노래의 한 가사처럼,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나올 것 같은 봄이 왔다. 이젠 제법 햇살도 바람도 따뜻해졌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만 하면 만사 'OK' 일 것만 같다. 이런 참나, 땅 끝에서는 일찌감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꽃들이 폭발처럼 팡팡 터져 나와 작심한 듯,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나섰다.

봄의 꽃들이 향연하는 가운데, 이젠 정말로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다. 마음은 급해지고, 아직 발길을 정하지 못했다면 꽃들이 장엄한 사찰을 찾아가 보자.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듯, 꽃과 고즈넉한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섬진강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산수유와 매화꽃은 지금이 가장 절정이다. 구례와 광양에서 열리는 산수유와 매화꽃 축제는 끝났지만, 봄마져 가버린 것은 아니다. 아직도 봄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숨어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섬진강과 지리산을 품고 있는 전남으로 가면 절경이 빼어난 사찰들이 많다. 그 중 화엄사는 꼭 한번 들러 봐야 할 필수코스이다. 화엄사 각황전 앞에는 특이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다. 꽃이 붉다 못해 검은빛이 돈다 해서 '흑매'라 불리는 이 나무는 화엄사를 대표하는 간판 꽃이다. 향기 또한 일품이어서, 화엄사를 들리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내달 초쯤이면, 화엄사에서는 이 흑매와 함께 벚꽃들까지 만개할 것이다.

화엄사와 더불어 구례의 3대 사찰로 꼽히는 연곡사와 천은사도 봄의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인 곳들이다.

오구, 생사 해학의 한풀이

연희단거리패, 20년 저력 쏟아부어



연희단거리패가 공연하는 '오구'의 한 장면.

이윤택 감독의 연희단거리패와 대표작품인 연극 '오구'가 1991년 독일 에센 세계연극제 이후 20년 만에 본래 고향인 가마골소극장으로 돌아왔다. 국내에서 드물게 최장기간 공연되고 있는 '오구'는 '귀신연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런 '오구'가 다시 본래 원년 멤버였던 남미정, 하용부, 배미향 등을 내세워 다시 무대에 오른다. 20년을 이어 온 연희단거리패의 오구는 많은 배우들을 배출해 내고 특별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던 화제의 작품이다. 1997년부터 노모 역을 맡았던 강부자는 '오구'를 대중적인 작품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오구는 늙은 어머니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들에게 산 오cot을 해 달라는 장면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오구 2 중에는 늙은 어머니는 죽고, 무대는 초상집으로 변한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 죽은 노모의 모습은 가슴이 아프지만, 노모의 코믹스런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의 연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전통장례의식조차 코믹하게 보여주는 오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거리감을 떨쳐버리게 한다. 이윤택 감독은 이러한 한국의 한을,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죽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없애고, 그들의 삶을 연극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죽음을 잊고 슬픔과 고통과 공포를, 춤과 노래와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우리 내 삶이고 한국적인 낙천성"이라는 것이 이윤택 감독의 생각이다.

오구는 저승세계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생각과 형태를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저승은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죽음을 거쳐 이승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또 하나의 세상인 것이다.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도 일상에서 쉽게 만난다. 초상집에는 물론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저승사자를 위해 밥을 따로 마련해 놓는 등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이렇게 저승은 우리에게서 동떨어진 세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세계라고 연극 '오구'는 말한다.

가마골소극장의 관계자는 "오구는 말, 노래, 마임, 각 지방 사투리 등 다양한 문화가 총체적으로 구성돼 관객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구조"라며 "무대 위의 연극이 아니라, 객석과 무대 구분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 배우가 관객이 되도록 공연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개방성이 그동안 오구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 '오구'는 4월 18일까지 공연된다. (051)868-5955

이은정 기자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초특기!! 단 4회

신청마감 4월 23일

출발일 : 5월 24일, 28일 (2회) / 6월 4일, 15일 (2회)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6일 - 135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 140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 / 헤호 - 7일 - 145만원

특 전

1. 국제선 및 국내선 왕복항공료 포함.
2. 전일정 특급호텔 및 식사포함.
3. 1억원 여행자 보험 포함
4. 각종 항공세 포함 (국제선 및 현지항공세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천공항세, 유료할증료)
5. 일정표상에 명시된 파고다 입장료 포함.
6. 미얀마 비자비용 (25,000원)
7. 불포함 외에는 추가비용 없습니다. (불포함 : 개인적인 제반사항 및 생수비용, 가이드+기사팀)

- 구화산/황산/보타산 6일 - 북경/백두산 6일 - 베트남 하롱베이/캄보디아 씨엠립 6일 - 캄보디아 씨엠립 5일 - 방콕/파타야 5일 - 대만 4일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불교성지전문 에스굿여행사 대표전화 02)365-7747

